

카카오 '먹튀논란' 류영준 사퇴... 일주일새 시총 11조 증발

(공동대표 내정자)

경영진 매도 '도덕적 해이' 지적
카카오 주가 10만원 선 무너져
매도공시 후 페이는 28.7% 하락
증권가 목표주가 잇따라 하향



10일 류영준 카카오 차기 공동대표 내정자(사진)가 자진 사퇴했다. 경영진 주식 매도 논란과 매크로 불확실성에 카카오그룹주가 또 한 번 주저앉았다.

이날 카카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4% 내린 9만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뱅크는 전일 대비 7.09% 하락한 5만1100원에, 카카오페이는 3.26% 하락한 14만8500원에 거래를 마

감했다. 특히 새해 증시가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1조원이나 증발했다.

논란은 류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900억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며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 상장 한달 만에 경영진이 코스피200지수 편입이라는 호재에 맞춰 44만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도덕적 해이' 지적을 받았다. 경영진이 주식을 대거 처분하기 전날 카카오페이 주가는 20만8500원이었

지만 이날 14만850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경영진 매도 공시 후 28.7%나 하락한 수치다.

개인과 외국인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증권가도 "시가총액 20조원인 기업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차기 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대해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류 대표가 자진 사퇴했다.

카카오 내부에선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나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파다하다.

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도 당장 매도할 수 있는 물량도 막대하다는 우려에 물량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진한 실적도 카카오 주가 하락에 한몫했다. 에프앤가이드 지난 9일 기준 카카오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021억원으로 3개월 전 2460억원 대비 17.85%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상장에 따른 임직원 스톡 옵션 관련 인건비 일시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낮추는 리포트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기존 18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췄다. 한국

투자증권도 카카오 목표 주가를 종전 16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목표 주가를 16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 연구원은 "동종 업계인 텐센트와 코인베이스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카카오와 두나무의 가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도 "연초 이후 카카오 주가는 지난해 불거진 정부 규제 이슈의 장기화, 단기 실적 부진,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동종 기업의 밸류에이션 하락 등으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술수출 기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비대면 개최

삼성바이오, 6년 연속 메인트랙 출격

SK팜데코, IPO 트랙에 초청
한미약품 등 아태 발표자 배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세계 최대 연례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올해도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술수출 등의 제휴 기회가 활짝 열려 있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10~13일 열리는 제40회 JP모건 컨퍼런스에는 JP모건의 초청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컨퍼런스는 본 행사인 메인 트랙과 상장을 앞둔 기업을 위한 IPO 트랙, 아시아·태평양 트랙, 중남미 트랙 등으로 나뉜다.

우선 메인트랙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년 연속 초청을 받았다. 올해 메인트랙에 참여하는 기업은 삼성바이오가 유일하다.

존 림 삼성바이오 대표는 12일 JP모

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현재 주력하고 있는 위탁생산개발(CDMO)의 경쟁력과 건설중인 4공장 가동 계획 등에 대해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이 예정된 SK팜데코는 처음으로 IPO트랙에 초청을 받았다. SK팜데코는 SK그룹의 위탁생산(CMO)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 LG화학, HK이노엔, 씨젠 등은 아시아·태평양 발표자로 배정을 받았다.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은 발표자로 참여하는 대신 컨퍼런스와 연계된 '바이오파트너링'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여한다. 해외 기업, 글로벌 투자사들과의 화상 회의를 통해 주요 신약 후보물질들의 공동 연구, 기술수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졌던 만큼 큰 기대를 모은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통풍치료제 URC102와 표적항암제 JW2286 등에 대한 대한 기술수출을 추진한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이번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빅파마 등과 항암 병용치료제(CRIOM,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유발 구강점막염 치료제)에 대해 약 30건에 달하는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파덱신과 에이비엘바이오, 네오이문텍, 지놈앤컴퍼니, 알테오젠, 메드팩토, 유틸렉스, 압타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등이 참여해 기술 수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50여개국 150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상대로 회사의 파이프라인, 기술력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이며, 세계적인 벤처캐피탈(VC), 헤지펀드 및 PEF 등 펀드들과 파트너링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올해 주목할 자동차 산업 5대 트렌드

“전기차 대세 속 재평가 이뤄질 것”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특별호
美-中 정책 따른 가치사슬 변화 추동

올해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는 한편 반도체 수급에 따른 생산차질과 전기차의 친환경성,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0일 '산업동향 특별호'를 통해 올해 주목할 글로벌 자동차 산업 5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연구원은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전기차 산업 ▲글로벌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변화 ▲중국차 세계시장 약진 ▲차별화에 고심하는 완성차 기업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5대 트렌드로 꼽았다.

연구원은 지난해 전세계 친환경차(xEV) 판매량이 1000만대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하며, 이 중 배터리 전기차(BEV)가 약 430만대로 전년 대비 93.7%가량 성장한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지만, 당분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자동차-배터리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누적 주문량이 이미 올해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등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배터리 원자재인 니켈·코발트 가격 인상으로 전기차 원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

아울러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탄소중립 관련 제도에 앞서 자동차의 생산-활용-폐기-재활용 등에서의 종합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전주기평가 도입을 논의 중이다.

연구원은 전주기평가 결과 전기차의 친환경성 우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주력화 시점을 늦추고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 신규 투자 유치 정책이 글로벌 자동차 가치사슬의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미국 내 노조가 결성된 완성차 기업에서 생산한 친환경차에 한해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외국의 완성차 기업이 지분 100%로 승용차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분 제한을 폐지한다.

중국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중국의 완성차 수출량은 지난해 1~11월 역대 최대인 179만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중국 브랜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의 합리적인 가격,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서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하고 있다.

또 올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요 완성차 기업은 파워트레인·새시 등으로 제품을 차별화했지만, 파워트레인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발전 등으로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

연구원은 전기차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테슬라 등 선도 기업의 구동 성능,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를 표준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효성그룹 '성과주의' 바탕 임원인사 단행

김규영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

효성그룹이 10일 철저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효성은 지주사인 ㈜효성 김규영 대표이사(사진)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효성 전신인 동양나이론에 1972년 입사한 '효성맨'으로, 인양공장장, 섬유 부문 CTO, 중국 총괄 사장, 타이어보강재 부문 CTO를 역임하는 등 50년간 효성의 성장을 이끈 산 증인이다.

특히 스파텍스 국내 기업 최초 자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효성의 주력 사업인 스파텍스와 타이어코드의 글로벌 1위 도약을 이끌었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지주사 대표이사를 맡으며 안정적인 경영에도 기여했다.

효성티앤에스 손현식 대표도 사장으로



로 임명됐다. 손 사장은 미국, 러시아 등 금융자동화기기(ATM) 사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낸 전문 경영인으로, 마찬가지로 1977년 동양나이론에 처음 입사한 이후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장과 금융사업 총괄담당 등을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핀테크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 밖에도 효성은 총 39명을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철저한 성과주의에 따라 코로나 19 등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장에 기여한 인사들과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대폭 승진 시켰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 CSV 프로젝트

'컨티뉴' 첫 공개

현대자동차가 10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공유가치창출(CSV) 프로젝트 '컨티뉴(Continue)'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컨티뉴는 현대차의 글로벌 CSV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로고 이미지 속 무한대 기호에 담아 표현했다. 현대차는 컨티뉴 프로젝트를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세대 등 세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하고, 글로벌 사업장과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 영역에서는 자원 순환과 생태계 복원 관점에서 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한다.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이동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고려한 모빌리티 연결 서비스들을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